

- 이지영 그 여자의 상사뱀, 그 남자의 상사뱀
- 한길연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을 중심으로
- 소영현 조선적 ‘에로’의 발명  
—1920~30년대 고백하는 섹슈얼리티와 성교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2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 표유진 여성수난서사의 전복: 사랑·전쟁·혁명의 다시 쓰기  
—정연희의 신문연재소설 『불타는 신전』을 중심으로
- 이소연 어머니라는 ‘괴물’  
—오정희 소설에 재현된 모성성에 대한 해체적 접근
- 유효만 한중 대중기억 속의 역사적 트라우마 서사 비교연구  
—영화 「꽃잎」과 「슈슈」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허 윤 케이팝의 남성성과 트랜스내셔널리티의 불/가능성
- 김수아 ‘이대남’과 반 페미니즘 담론  
: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을 중심으로

# 그 여자의 상사뱀, 그 남자의 상사뱀

이지영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 1 서론
- 2 상사뱀 이야기의 유형 분류
- 3 남녀 화자의 구연 양상
  - 3.1 남성 상사뱀 이야기
  - 3.2 여성 상사뱀의 경우
- 4 이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
  - 4.1 남성 상사뱀에 반영된 여성의 혐오와 공포
  - 4.2 여성 상사뱀에 투사된 남성의 욕망
- 5 결론

이 글은 화자의 성별에 따른 상사뱀 설화의 구연 양상을 비교하고, 이를 성적 욕망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로 해석하였다. 상사뱀 설화는 상사뱀으로 죽은 남자가 뱀이 되어 사랑하는 여자의 몸에 들러붙는다는 남성 상사뱀 설화와, 남자를 사랑한 여자가 죽어 뱀이 되는 여성 상사뱀 설화로 나뉜다. 남성뱀 설화의 여성 화자는 상사뱀이 붙은 여성에 공감하면서 구술하는 반면, 남성 화자는 상사뱀에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 상사뱀을 미리 방비한 이야기는 여성 화자들만 구연했는데, 상사뱀에 대한 여성들의 혐오감이 표현된 것이다. 남성의 배신으로 여성이 뱀이 되는 유형에서, 여성 화자는 약속을 저버린 남성에게 대한 분노와 떠난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의 기다림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남성 화자는 여성의 감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을 짝사랑하다 뱀이 되는 유형은 남성 화자의 구연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성 화자들은 여성의 구애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시각을 보였다. 여성 화자가 구연한 남성뱀 설화에서 특히 뱀에 대한 혐오감이 두드러진 이유는 여성이 성폭행에 취약한 현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반면, 남성 화자들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포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야담집에 나타난 사대부 남성의 시각과 유사하다. 남성이 향유한 텍스트에 표현된 여성의 성적 욕망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욕망을 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문핵심어: 상사뱀, 화자의 성별, 남성 화자, 여성 화자, 일방적 사랑, 성적 욕망, 욕망의 투사, 상사뱀에 대한 혐오감.

## 1 서론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상사뱀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는 광포설화이다. 15세기 『용재총화』, 19세기 『송남잡지』 및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이미 조선시대에 상사뱀 설화가 널리 전승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사뱀 설화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잡지 및 신문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거나 기사화되었으며,<sup>1</sup> 일본인 학자 무라야마 지준[村山至順]은 이를 귀신의 일종으로 소개하였다.<sup>2</sup>

상사뱀 설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용덕과 강진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sup>3</sup> 이들은 상사뱀 설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서사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후 상사뱀 설화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뱀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sup>4</sup> 한일 설화의 비교,<sup>5</sup> 상사뱀 모티프에 대한 통시적 고찰,<sup>6</sup> 설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명<sup>7</sup> 등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상사뱀의 원인을 사회문제와 결부된 욕망의 좌절로 보면서 상사대상보다는 상사뱀을 중심으로 설화를 해석하였다.<sup>8</sup> 그러다보니 상사뱀의 욕망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은 심각하게 조명되지 않았다.<sup>9</sup>

이 글에서는 상사뱀 설화가 상사뱀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상사뱀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설화를 남녀 화

- 
- 1 근현대 상사뱀 설화에 대해서는 이주라, 「근현대 상사뱀 모티프의 변화와 한국 공포물의 특징」, 『비교한국학』 제24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6 참조.
  - 2 村山至順, 『朝鮮の鬼神』, 조선총독부, 1929(노성환 역, 『조선의 귀신』, 민음사, 1990 참고.)
  - 3 김용덕, 「상사뱀 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1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강진옥, 「상사 설화의 ‘뱀 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호, 한국고전문학회, 2000.
  - 4 강성숙, 「성 정치로 본 상사뱀 설화」, 『고전문학연구』 제39호, 한국고전문학회, 2011.
  - 5 카이미, 「한일상사뱀 설화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6 이주라, 앞의 글.
  - 7 한양하·장시광, 「상사뱀 설화로 본 남명의 남성성」, 『남명학연구』 제65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20; 강성숙, 「연결 불가능한 신체, 상사뱀의 정치 지형」, 『이화어문논집』 제53호, 이화어문학회, 2021.
  - 8 김용덕은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죽어 상사뱀이 되었으며 신분의 차이가 그 원인이라고 보았으며(김용덕, 앞의 글), 강진옥도 계층적 차별로 인해 좌절된 욕망의 화신이 상사뱀이라고 하였다.(강진옥, 앞의 글) 이후 연구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시각을 수용하였다.
  - 9 강진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고, 강미정이 사랑의 일방성이 지니는 문제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폭력성으로 해석되는 설화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강진옥, 위의 글; 강미정, 「상사뱀 설화와 영화 「페인티드 베일」의 비교를 통해 본 일방적 사랑의 문제」, 『문학치료연구』 제28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자의 태도와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화자의 성별에 따라 구비설화의 주제와 결말 등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고찰된 바 있으며,<sup>10</sup> 남녀 화자가 구연한 상사뱀 설화의 유형 분포가 다르다는 언급도 있었다.<sup>11</sup> 상사뱀 설화는 남녀 간의 사랑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른 변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사뱀 설화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눈 뒤, 화자의 성별에 따라서 동일한 유형이 다르게 구연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상사뱀에 대한 남녀 화자의 구술태도를 통해서 성적 욕망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상사뱀 이야기의 유형 분류

이 글에서는 1979년에서 1984년 사이에 채록된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의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대계』에 수록된 설화를 대상으로 상사뱀 설화를 조사하고 정리한 바 있다.<sup>12</sup> 이들 선행연구를 참조하되, 중복된 설화를 제외하고 빠진 것을 보완하여 총 47편의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

강진옥은 상사뱀 설화를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나눈 뒤 남성형을 다시 상사풀이형과 퇴치형으로, 여성형을 미혼형과 기혼형으로 나누었다. 여성형 중에서 미혼형은 다시 파국형·전이형·해원형으로 나누었다.<sup>13</sup> 이러한 분류는 상사뱀 이야기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기혼형과 미혼형을 나누고 미혼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혼형 설화의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카이미는 이를 보완하여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분류한 뒤 결말양상에 따라 남성형은 복수형·퇴치형·예방형으로, 여성형은 복수형·퇴치형·예방형·해원형

10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출가외인’ 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박상란, 「여성 화자 구연 설화의 특징」, 『구비문학연구』 제19호, 한국구비문학회, 2004 등 참조.

11 강진옥, 앞의 글, 130-133쪽.

12 김용덕과 강진옥은 각각 41편의 설화를 조사하였다.(김용덕, 앞의 글; 강진옥, 앞의 글)

13 강진옥, 앞의 글.

으로 분류하였다.<sup>14</sup> 남성형과 여성형에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상사뱀 설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상사뱀 설화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어서 ‘여성형-예방형’처럼 우리나라 설화에는 없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1차적으로 상사뱀의 성별에 따라서, 2차적으로는 상사대상의 입장에서 본 결말양상에 따라서 상사뱀 설화를 분류하고자 한다. 그런데 남성 상사뱀 이야기에서 남성의 사랑이 일방적인 것과 달리, 여성 상사뱀 이야기에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 외에도 남성이 여성과 관계를 맺은 뒤에 배신하는 유형이 있다. 따라서 여성 상사뱀 이야기는 남녀 관계에 따라 남성이 배신하는 유형과 여성이 짝사랑하는 유형으로 나눈 뒤, 각각의 유형을 다시 결말양상에 따라 분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계』에 수록된 47편의 설화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남성이 상사뱀이 되는 경우 [\*음영 부분은 여성 화자]

번호	결말	제목	대계	성별	제보자
1	죽음	상사바위	8집 1책	남	김삼운, 63
2		능포 상사바위	8집 2책	남	김영수, 66
3		상사바위	8집 4책	남	강재성, 66
4		상사뱀	8집 14책	남	여종한, 68
5		상사바우 전설	8집 15책	남	이위수, 77
6		죽어서 나비가 된 처녀총각	3집 3책	남	김영태, 68
7		과부를 짝사랑 하다 죽어 구렁이가 된 총각	5집 1책	남	송경조, 79
8		한으로 구렁이가 된 사람	6집 11책	여	명시여, 58
9		총각 상사뱀	7집 13책	여	진능선, 97

14 카이미, 앞의 글.

10		상사풀이	8집 3책	여	심을순, 61
11		상사병 걸린 중	8집 5책	여	주필득, 76
12		상사뱀	8집 9책	여	김분임, 61
13		상사바위	8집 11책	여	김봉규, 58
14		상사뱀	8집 14책	여	진순남, 62
15	퇴치	두 눈이 툭 불거지도록 기다린다	4집 1책	남	황용연, 78
16		청평사 전설	2집 2책	남	박석산, 70
17		청평사 전설	2집 2책	남	박광철, 46
18		상사뱀 이야기	8집 14책	여	김금안, 53
19		사촌누이 보고 상사구렁이 된 총각	7집 13책	여	진능선, 97
20	방비	상사뱀 이야기	8집 14책	여	조도돌, 46
21		구렁이가 된 중	8집 5책	여	이선이, 76
22		상사바위	8집 9책	여	김류이, 68
23		상사뱀	8집 9책	여	구점선, 55
24		상사뱀 이야기	8집 9책	여	제훈이, 64

표2. 여성이 상사뱀이 되는 경우 [\*음영 부분은 여성 화자]

번호	관계		제목	대계	성별	제보자
1	배신	원한	남명과 상사구렁이	8집 3책	남	강기중, 87
2		죽음	상사뱀	8집 9책	남	김상옥, 62
3			죽어서 뱀이 된 여자	7집 6책	여	김국선, 41
4			죽어상사뱀이된 아내	7집 13책	여	진능선, 97
5			상사뱀	8집 9책	여	강무연, 55
6		해원	죽어 구렁이가 된 여인의 한	5집 6책	남	손병준, 85
7			부처의 도술로 떨어진 상사구렁이	7집 7책	여	이수춘, 69

8	짝사랑	죽음	갑장산 상사바위 전설	7집 7책	남	이기환, 62
9		원한	조월천의 상사뱀을 물리친 퇴계선생	7집 13책	남	배동벽, 75
10			상사뱀을 앓는 처녀를 못 살린 조월천	7집 18책	남	임원기, 75
11			옥천 선생과 상사뱀	7집 6책	남	신기수, 67
12			조남명선생과 상사뱀	7집 15책	남	김호준, 88
13			조월천과 상사뱀	7집 12책	남	최유신, 69
14			조월천을 살려준 퇴계 선생	7집 11책	남	최귀식, 71
15			남명선생 전설	8집 4책	남	박시원, 75
16			조식선생과상사구렁이	8집 10책	남	왕정효, 57
17			해원	구렁이가 된 처녀	6집 2책	남
18		강감찬과 상사뱀		6집 3책	남	신판휴, 71
19		상사뱀으로 죽은 처녀		7집 1책	여	조씨, 60
20		이순신 장군과 상사뱀		7집 15책	남	김호준, 88
21		이순신장군과 상사뱀 걸린 처녀		8집 5책	남	신종출, 63
22		상사뱀		8집 5책	남	이시균, 68
23		파평윤씨와 상사뱀		7집 14책	남	박기탁, 72

### 3 남녀 화자의 구연 양상

#### 3.1 남성 상사뱀 이야기

『대개』에 수록된 남성 상사뱀 이야기는 모두 24편으로, [남성뱀-죽음] 유형이 14편, [남성뱀-퇴치] 유형이 5편, [남성뱀-방비] 유형이 5편이다. 그 중 [남성뱀-죽음] 유형은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가 구연한 설화가 각각 7편씩인데,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남성이 여성을 사랑한다.



- ② 남성이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상사뱀이 된다.
- ③ 상사뱀이 여성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 ④ 상사풀이가 실패하여 여자가 죽는다.(물에 빠져 죽는다/말라 죽는다/불에 태워진다 등등)

①에서 상사주체가 되는 남성은 각편에 따라서 머슴/하인(4편), 중(3편)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막연히 총각으로 등장하거나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도 14편 중 7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상사뱀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남녀의 계층 차이가 상사뱀 설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지만,<sup>15</sup> 신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신분 차이가 설화의 핵심 화소인지는 의문이다.<sup>16</sup>

상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 차이는 욕망을 가로막는 제도적 억압이지만, 상사대상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는 요소이다. 상사주체가 ‘중’일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성의 일방적 감정이 효과적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남성이 사랑과 부합되지 않는 신분이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상사주체의 신분은 일방적 사랑을 드러내는 서사적 요건 중 하나이다.

또한 남성 상사뱀 설화 24편 중에는 남녀가 서로 마음은 있었으나 사랑을 이루지 못한 각편도 4편이 있어,<sup>17</sup> 일방적 사랑이 상사뱀 설화의 본질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설화에서 상사뱀은 여성에게 혐오스런 존재라는 점에서 남녀의 쌍방관계를 이 설화의 본질적 화소로 보기는 힘들다.

④의 결말 부분은 각편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4편 중 8편에서 상사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내용이 나온다. 이 때 상사풀이는 상사뱀

15 김용덕, 앞의 글; 강진옥, 앞의 글.

16 김용덕은 상사뱀 설화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단 한편도 없다고 하였지만(김용덕, 앞의 글, 358면) 강성숙은 상사뱀이 되는 여성이 신분이 높고 부유한 인물로 설정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욕망이 통제된 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여성이 상사뱀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강성숙, 앞의 글, 2011, 171-175쪽.)

17 「한으로 구렁이가 된 사람(명시여)」, 「상사바위(김삼윤)」, 「상사풀이(김분임)」, 「죽어 나비가 된 처녀총각(송경조)」 등에서는 처녀와 총각이 서로 마음에 둔 것으로 나온다.

의 끔찍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사뱀 붙은 여성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몇몇 각편에서는 상사뱀이 붙은 여성을 상사바위로 데려가 상사풀이를 하는 주체를 ‘부모’라고 밝히고 있으며, 상사풀이에 실패하여 여자를 ‘물에 밀어 넣는다’는 말이 나오는 설화가 6편이나 된다.<sup>18</sup> 이 같은 내용은 상사뱀 붙은 여성이 공동체에서 용납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사뱀-죽음] 유형을 구연한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 수는 동일한데, 남녀 화자가 구연한 설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여성 화자가 구연하는 경우 단락①과 단락②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된다.

- 나물 뜯어러 가만 이놈이 뱀이 있어마 죽어 갖고 벌써 뱀이 코로 나와 갖고 그 간다. (진능선, 여)
- 처녀가 아무도 집에 사램이 없어서 문을 안 열고 문구녕으로 오래 내다 봤다 말이라. 내다 봉께 동냥을 돌라고 쫓다가 그 처녀가 문구녕으로 내다 본 걸 알기 때문에 이 중이 고마 상사뱀이 걸렸던 모양이라. 고마 이 중이 가 가지고 구리가 댕어.(주필득, 여)
- 머슴 엄두리 총각이 그 처녀를 참 보고 싶은 기라. 보고 싶어 가지고 하루는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단 말이다. 그래 뱀이 댕는기라.(김봉규, 여)

이처럼 여성 화자는 상사뱀이 되는 과정은 간략히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③과 ④ 부분, 즉 상사뱀이 붙은 여성이 고통 받다가 죽는 과정은 자세히 구술한다. 이는 여성 화자들이 상사뱀보다는 상사대상이 되는 여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구연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반면, 남성 화자가 구연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상사뱀이 되기까지 ①에 해당 하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동일 지역(경남 진양)의 남녀 화자가

18 「총각 상사뱀」(진능선), 「상사바위」(심을순), 「상사풀이」(김분임), 「상사바위」(김봉규), 「상사바위」(강재성), 「상사바위」(주필득) 등에는 “밀어뿌마”, “엿어빼렸어” 등의 표현이 나온다.

‘상사바위’에 대해서 구연한 것을 해당 서사단락의 번호를 붙여 비교해 보자.

「상사풀이」(심을순, 여)

- ① 옛날에 중이 동냥, 동냥하로 와가 처지가 참 있었는데 처자로 보고 상사가 맏히가이고 (조사자 중이?) 예.
- ② 그래 가이고 상사가 맏히며
- ③ 딱 구리가 요 택 받침해 가이고 요오 감고 있다 쿠디, 처자로 그 상사 맏히가 아무리 거석할라 캐도 안 되서,
- ④ 이 저 바우겔은, 밑에 참 절벽인데, 그 밑에 마 시퍼런 소이거덩요, 강이라서, 남강이 그 내리서, 그 상사 바우 가서 상사 풀이로 하다 하다 안 되서, 고만 그 소에다 밀어 쫓아 빠렸어. 그래 상사 바우라. 이전 에, 처자가 안 떨어졌어예. 부모네들이 그랬지 뭐.
- ③ 뱀이가 처자 살에 꼬랭이는 꼽히고, 입은 여어 턱 밑에 요래 받아 가이고, 딱 그래 가이고, 상사가 되모 그렇다 쿠는 기라. 택구는 모르고, 짹짹 피로 빨아먹는 걸이 해 가이고, 그, 그 꼬라지 우찌 볼 끼요?<sup>19</sup>
- ④ 그래 풀리기로 한다꼬 그 바우 끝에 충암 절벽에 우에 가서, 무당을 대가이고 아무리 굿을 해도 안 되고 뭐 그래. 그래 밀어 쫓아 땀에 그래 상사바우라.

「상사바위」(강재성, 남)

계원 홍지동이, 그 근방 지방인데, 고 상사바우는 계원 홍지동 하몬 계원리 홍지동이라. 고에에 인자

- ① 절 중이 상좌를 댕고 말하자면 시주하러, 동냥하러 간 거지. 갔는데, 한 집에 드가니까 동냥을 줌 도라고 이래 하는데 아, 소리도 없는 기라. 아무 준다 안 준다 말도 없고 이러길래 그 상좌 중이 말이며, 그 방에 그 인자 말하자면, 청까지 일어 보니까, 그 처니가 말이며, 과년 찬 처니가 방에서 문구녕을 내다보고 있는 기라. 그래, 문을 열고 안

19 심을순은 결말을 이야기한 뒤에 ③과 ④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 줄라, 줄라 쌓는데, 아, 그 처니를 보고, 언자, 그 상좌 중 그놈이 언간 이 그것도, 과년이 찾던 모양이지.
- ② 아 그래 가아 고마 씨룩씨룩하이 죽어뻘는 기라. 그 놈이. 죽어 뻘는 데, 아이, 그, 인자 죽고 나서 우찌 뻘는지, 처니는 모르는 거라.
- ③ 그라몬, 상사라 쿠는 기 구렁이라 하데. 그래 뱀이가, 인자, 자기 몸을 감은 거지. 처니 몸을. 감아 가얏고, 예, 이걸, “나는 죽을, 이래 죽겠다.”카면, 눈물을 받아 묵고 산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게 못인 데요.
- ④ 그 상사바우가 있는데, 못이 돼 갖고 있는데 그래 인자 상사풀이를 한 다는데. 해 갖고 예, 그 인자, 뭐 저 액을 우짜든지, 이런 것을 뭐, 무당을 텔고 이래 해 갖고 그 사람, 인자, 그, 상사구렁이가 고만 떼쳐 가 뿌면 그만인데, 꼭 안 가는 기라. 그런께네 그 처녀를 물에 차영 뻘다. 그래 가이 상사바구다

심을순은 중이 동냥하러 와서 처자에게 상사가 뻘었다는 ①과 ② 부분을 한두 줄로 요약했는데, 상사뱀이 붙어 상사풀이하다 죽는 ③과 ④부분은 그 두 배가 넘는 분량으로 구연했다. 반면 강재성은 전체적으로 단락별 서술이 고른 가운데 ①과 ②의 서술 분량이 ③과 ④부분보다 조금 더 많다. 심을순은 ③과 ④부분을, 강재성은 ①과 ②에 더 중점을 두고 구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심과 공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남성 화자는 상사병에 걸린 남성에 공감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상사뱀이 되었는가에 관심을 두지만, 여성 화자는 주로 상사뱀 붙은 여성에게 공감하면서 상사뱀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중한(남)은 「상사뱀」을 구연하면서 말미에 여자가 죽자 총각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고 하였는데,<sup>20</sup> 상사뱀을 끔찍하게 생각한 여성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힘든 결말이다. 이러한 결말은 화자가 상사뱀이 된 남성에 대해 더 공감하였기 때문에 구술했다고 할 수 있다.

상사주체인 남성을 중심으로 구술한 단적인 사례로는 「과부를 짝사랑하다

20 「상사뱀」(여중한, 남)

죽은 총각」(송경조)을 들 수 있다. 과부를 짝사랑하던 총각이 어머니를 졸라서 과부를 만나게 된다. 과부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로 설레는 마음에 “아주 팽돌팽 돌히 일도 잘하고 아주 잘”하던 총각은 만나자마자 뺨을 치는 과부의 냉담함에 병들어 죽는다. 이 설화는 과부에 대한 총각의 애타는 마음이 자세히 서술된 단락 ① 부분이 대부분의 서술을 차지하고 있는데, ②③④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①이놈이 와서 연해 와서 연해 앓다가 죽어버렸어. 죽은 개 비암이 되더라등만. (조사자-무엇이 돼요?) 비암이 돼, 비암이. ③그래가지고 과부를 칭칭 감고 ④죽어버리더라.(「과부를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 송경조, 남)

설화의 구연자가 과부에 대한 총각의 절절한 마음과 뺨맞은 뒤 상심하는 대목을 자세히 서술하였기에, 상심한 총각이 상사뺨이 되어 과부를 감아 죽였다는 마지막 대목은 총각의 시점에서 통쾌한 복수처럼 인식된다. 총각의 일방적 사랑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죄 없이 상사뺨에 감겨 죽은 과부의 처지에 대한 연민은 나타나지 않는다.

「과부를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과 대조적인 설화가 진능선(여)이 구연한 「사촌누이 보고 상사구렁이 된 총각」이다. 이 설화에서는 옷통 벗고 머리 감는 사촌누이를 보고 욕정을 느낀 사촌동생이 죽어 상사뺨이 되자, 사촌누이가 뺨을 속여서 전대에 넣은 후에 팔죽 끓는 솥에 넣어버린다. 화자는 상사뺨이 된 사촌동생을 잡아 팔죽을 끓여 일꾼들에게 먹이는 과정을 상세하게 구연하며, 일꾼들에게 뺨이 들어간 팔죽을 먹인 후에 그 그릇을 “말카 문때 씻거서 그릇 다 씻고 솥 다 씻”었으니 상사 뺨힐 데가 없었다고 말한다. 화자에게 상사뺨이 된 사촌동생은 연민이 아닌 제거의 대상일 뿐이다.

여성 화자가 여성인물에 더 공감하고 있음은 [남성뺨-방비] 유형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유형의 공통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이 동냥하다가 어느 집 처녀를 보고 욕심을 낸다.

- ② 중이 실뱀이 되어 여자를 찾아간다.
- ③ 남동생(상좌/아버지)이 처녀에게 가서 변소에서 월경 묻은 속옷을 뒤집어쓰고 앉아있으라고 한다.
- ④ 처녀가 상사뱀을 피한다.

이 유형의 구연자들은 상사뱀이 한번 붙으면 뗄 수 없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sup>21</sup> 상사뱀이 붙는 일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월경혈이 묻은 속옷을 뒤집어쓰고 변소 가서 앉아 있는 것이다. ‘변소’에서 ‘월경혈’ 묻은 것을 뒤집어 쓴 채 앉아 있는 여성을 본 중은 “더럽고 누추하더라”<sup>22</sup>고 하면서 더 이상 욕정을 품지 않는다.

이 때 월경혈은 일종의 배설물로서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는데, 월경 중인 여성을 제사에서 배제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여성들은 월경 중인 여성을 더럽고 누추하다고 보는 시각을 이용하여 자신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났다. 변소에서 월경혈을 뒤집어쓰는 일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상사뱀이 붙는 일은 끔찍하고 혐오스런 일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남성뱀-방비] 유형이 여성 화자에 의해서만 구연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진옥은 여성 화자의 구연설화가 “여성인물의 해방이라는 결말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여성인물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부여하고자 하는 여성의식의 반영”이라고 하였다.<sup>23</sup> 그러나 방비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사뱀에 대한 혐오감이다. 자신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상사뱀은 혐오스런 존재인 것이다.

### 3.2 여성 상사뱀의 경우

21 “안 그라문 상사가 맏히면 똥 누러 갈라 카면 비키 주고 저 구리가 떨어지고 머리 빗을라카면 떨어지고 그래 상사풀이를 하다가 안 되면 그 상사바우 가서러 풀이를 하다가 안 되면 탁차 내뿌리면 그 밀이 강이라 카데? 그러문 떨어지서 죽어뿐다 카데.”, 「상사바위」(김류이, 여).

22 「구렁이가 된 중」(이선이, 여).

23 강진옥, 앞의 글, 131쪽.

『대계』에는 여성과 동침한 뒤에 남성이 약속을 저버리는 [여성뱀-배신]형이 8편, 여성이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여성뱀-짝사랑] 형이 15편 채록되어 있다. 먼저 [여성뱀-배신] 형의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1. 한 남자가 길을 가다 만난 여인(주막 여인, 오두막집 처녀)과 동침한다.
- 2. 남성과 여성이 혼인한다.
- ②-1. 다시 찾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 2. 남편이 일본으로 떠난 뒤에 돌아오지 않는다.
- ③ 남자를 기다리던 여인이 죽어 상사뱀이 된다.
- ④-1. 남자가 뒤늦게 여인의 집을 찾는다.
- 2. 여자의 부모가 남자를 데리고 온다.
- 3. 상사뱀이 남자를 찾아간다.
- 4. 시부모가 상사뱀을 일본으로 보낸다.
- ⑤ 상사뱀이 남자의 몸을 (감는다/붙는다)
- ⑥-1. 상사뱀의 원한이 풀린다. [여성뱀-배신-해원]
- 2. 상사뱀이 붙은 남자가 죽는다. [여성뱀-배신-죽음]
- 3. 상사뱀이 원한으로 해꼬지를 한다. [여성뱀-배신-원한]

강진옥이 ‘기혼형’으로 분류한 ‘일본 간 남편을 기다리다 상사뱀이 된 아내의 이야기’도<sup>24</sup> 찾아오지 않는 남자를 기다리다 상사뱀이 되어 남자의 몸에 붙는다는 내용은 일치하고 있어 배신형에 포함시켰다. 이 유형은 ⑥의 결말에 따라 상사뱀으로 인해 남자가 죽는 죽음형, 상사뱀의 원한이 풀리는 해원형, 상사뱀을 죽인 제자가 화를 당하는 원한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원한형은, 남자는 원한을 풀어주려 했는데 그 제자가 상사뱀을 죽여 화를 입는다는 점에서, 해원형과 죽음형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해원형과 죽음형을 중심으로 [여성뱀-배신]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위의 글.

[여자뺨-배신-죽음] 유형은 남성 화자가 1편, 여성 화자가 3편 구연했는데, [여성뺨-배신-해원] 유형은 남성과 여성 화자가 각 한 편씩 구연했다. [여자뺨-배신] 유형에서 여성 화자가 구연한 설화 4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떠나간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이수춘, 여] 이 남자는 그래 가가이고 가고 여자는 날이 날마등 찻 옷을 곱게 입고 단장을 하고 그 남자 오는 질시에 날이 날마중 아래여. 날이 날마중 아래도 그 남자가 안오거든.

[강무연, 여] 이 여자는 언제 만나기 하노 카면 일년 시월 십일날 만나기 했는데, 삼 년 돼도 시월십일날 돼도 안 오는 기라. 안 오고 그래 갈 방있이 떨해도 오는가 싶어가 문을 열어도 안 오고 안 오고 이래서 그 질로 죽어뻤는기라.

[진능선, 여] 장개 디리다 놓고 덜다 놓고 저는 일본 가갖고 일본년 디리고 살고 다시 생전에 마느래한테 안 와. 안 와 갖고 마느래가 죽어서, 꼬지꼬지 말라갖고 저어산께 자숙도 못 놓고 서방도 생전에 안 오고 시집만 살고 이란계네, 마 이 마느래가 킨킨히 말라갖고 죽은께.

[김국선, 여] 남자가 장개를 가가주고 사흘 만에 일본을 가뿌랬어. 사흘 만에 일본을 가뿌랬그덩. 가고는 갔는 걸음에 집에 종적을 끊어뿌랬어. 종적을 끊어뿌고 인제 그래가 뗏 해가 있다가 집에 인제 부모도 있고 하이께네 가족도 있고 하이 에에뎀는가 시위가주 한 분 당기로 오이께네 참 지 덜다 놓고 간 부인이가 뻘뻘 말라가주 요 손가락 걸그덩. 뻘만 붙었서. 노란계. 남자 참 마음에 지가 결혼해가 그 부인을 안 들여다 본 생각은 안하고 고마 여자가 와보이 여자가 말라가 꼬지꼬지 말라가 저래이께네 눈에 천불이 나가주고 집에 메칠 있다가 가는데도 고마 그 여자를 일절 안 걸어뎀어. 안 걸어보고 있다 고마 일본을 가뿌랬그덩. 가쁜 디에 이 여자가 고마 죽어뿌렀다.

이수춘은 날마다 곱게 차려 입고 길에 나가 남자를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을, 강무



연은 가랑잎 소리에도 혹시나 그가 왔나 문을 열어보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했다. 또 진능선은 남편이 ‘일본년 데리고 사는 동안’ 시집살이를 하느라 ‘꼬지꼬지 마른’ 아내의 모습을, 김국선은 일본 간 뒤 볼 품 없이 ‘빼빼 마른’ 아내를 쳐다보지 않고 떠나는 남편의 매정함을 자세히 구술하였다. 이처럼 여성 화자들은 하염없이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신의 없는 남성에게 대한 분노를 유발하고 상사뻘이 된 여성을 동정하도록 구연한다.

반면에서 남성 화자들은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손병준, 남] 아 선산에 가서 인자 성묘하고 인자 부모기 영화를 비고 근게 아버니가 돌아가갔네. 아 근게 못 오고 강 삼년상을 지내 버리고 나선게 올 여가가 있어야지. 그서 못 왔네. 그 여자는 꼭 남편이 과거를 히가지고 감서 나를 데리꼬 갈턴디 기양 갔고나 그러고 강고 높이 강 뺨이 들어가지고 죽었어.

[강기중, 남]그래 인자 보름 만에 내리와 가이고 천상 처자 집을 가야 될 낀디 저거 집을 갔다 말이라. 남명 선생이 저거 집을 갔다 말이라. 하, 처자 집에 안 가고. 하, 고마 처자가 그마 보름이 넘었다 아 이가? 보름이 넘었는데 처자가 고만 상사가 되 가이고 고마 구리가 뻘어.

[김상옥, 남] 예전에 저 한 사람이 내우간에서 만났는데 그러구로 해가지고 그래 신랑이 일분을 드가뻘는기라. 하매나 나오까 나오까 카이께 안 나오는기라. 그러구러 하다가 여자가 마 병이 나 죽어뻘다.

손병준은 남성이 오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고 있고, 강기중은 남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김상옥은 남편이 일본 가서 오지 않았다고만 하여 남성의 의도에 대해 모호하게 구연했다. 이처럼 남성 화자의 구연은, 당사대상인 남성의 입장에서 구연하면서 여성의 감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화자의 구연과 대비된다.

남녀 화자의 이러한 차이는 상사뻘이 된 아내가 일본 간 남편을 찾아가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옥, 남] 보낸데 저걸 안 찾아면 꽤았는데, 해필 그 집에 가가 고걸 찾았는 기라. 찾아 가지고 고거로 끼랴단 말이야. 끼라이께네 뱀이 가 탁 나오는 기라. 그래가자고 그 뱀이가 신랑을 딱 만나가지고 가슴에 딱 붙어. 어데서 붙노 카면 상사 맺힌 뱀이는 가슴에 요 닥 붙어가.

[김국선, 여] 남자는 고마 아드라네. 그 사람 많은 데 여사 꼬리를 사랑 사랑 치고는 남편 있는데 찾아가드란다. 그래 남편한테 찾아가 가 주고 고마 남편 품에, 가슴에 딱 붙어뿌드란다.

[진능선, 여] 들시 본께 뱀이 한 마리 들았았거던. 시리리 나오디마는 저 거 남자 앞으로 가더란다. 가서 딱 았디마는, 그래 남자가 “니가 저 내 처가?”이칸께, 고개를 끄떡끄떡 걸거던. “천데, 그래 니가 와 이 모양이 디갓고 니가 왔노?”컨께, 말로 하나 암 말도 안하고 이래

총 세 편이 채록된 ‘일본 간 남편을 기다리다 상사뱀이 된 아내의 이야기’에서 상사뱀 아내가 상자에 담긴 채 일본에 가서 남편을 만나는 장면이다. 김상옥은 상사뱀이 든 상자를 ‘하필이면 찾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남편이 상사뱀을 피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데 김국선은 상사뱀이 된 아내가 남편을 찾은 장면을 상사뱀 아내의 시점에서 서술하였고, 진능선은 남편의 물음에 답하는 상사뱀의 모습을 사람처럼 구술하고 있다. 김상옥은 상사뱀이 된 아내를 단지 ‘뱀’으로만 구술했는데, 김국선과 진능선은 뱀의 모습이기도 하나 그 속에 ‘아내’로서의 모습을 함께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로 볼 때, 여성 화자는 아내에게 더 공감하는 반면, 남성 화자는 남편에게 더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남녀 화자가 구연한 설화를 비교한 결과, [여자뱀-배신] 유형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 화자의 차이는 설화의 결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뒤늦게 찾아온 남성을 커다란 뱀장이 나와 몸을 칭칭 감아 죽이는 「상사뱀」(강무연, 여)의 장면에는, 약속을 저버린 남성에게 대한 여성 화자의 비판적 시선이 개입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인데도, 「죽어 구렁이가 된 여인의 한」(손병준, 남)에서는 남성이 한 번 보듬어 주는 것으로 상사뱀의 원한이 풀린다. 남성 화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남성의 처지에 더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설화 중에서 여성 화자가 구연한 설화는 모두 4편인데, 이 중 3편이 배신한 남성의 죽음으로 끝난다. 게다가 나머지 1편인 「부처의 도술로 떨어진 상사구렁이」은 마지막에 부처의 힘으로 해원하는 내용이 덧붙여진 변이형으로, 기본적으로는 죽음형에 가깝다. 이로 볼 때, 여성 화자는 배신한 남성을 죽이는 결말을, 남성 화자는 상사뱀의 원한이 풀리는 결말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뱀-짝사랑] 형의 설화는 16편으로, 7편인 [여성뱀-배신] 유형의 두 배가 넘는다. 상사뱀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일방적 사랑으로 인해 뱀이 된다는 점은 상사뱀 설화의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뱀-짝사랑] 유형은 여성 화자보다는 남성 화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18편 중 1편만 제외하고 모두 남성 화자가 구연했다.

[여성뱀-짝사랑] 유형의 공통적인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여성이 남성을 흠모하나 이루지 못한다.
- ② 여성이 죽어 상사뱀이 된다.
- ③-1. 상사뱀의 원한으로 남자가 화를 입는다.
- ③-2. 남성이 상사뱀이 자신의 몸을 감도록 하여 원한이 풀리게 한다.

이 유형에서 여성은 백정의 딸·아전의 딸·주막집 처녀·술집 딸·홀어미 딸·학자 딸 등으로 설정되고, 여성이 짝사랑하는 상사대상은 학동·총각·대성가의 귀한 자식 등이거나 조월천·조남명·이순신·강감찬 등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다. 대체로 여성의 사회적 신분을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설정하여 애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도록 하였지만, 학자의 딸로 설정한 사례도 발견되어 신분 차이를 중심 화소로 보기는 힘들다.

[여성뱀-짝사랑] 유형은 결말에 따라 남성이 여성의 구애를 매정하게 거절하여 화를 입은 원한형과, 뒤늦게나마 여성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는 해원형으로 나뉜다.<sup>25</sup> 이 중 원한형이 8편, 후자의 해원형이 7편이다.

25 이밖에도 「갑장사 상사바위 전설」처럼 남자의 죽음으로 끝난 것도 있는데, 이는 남자 상사

먼저 [여성뱀-작사랑-원한] 유형은 모두 남성 화자가 구연했는데,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남성 화자의 관심에 의해 상사뱀 이야기를 변형시켰다.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에 따라 이야기의 양상은 달라지지만, 여성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상사뱀을 달래주지 않은 경우 화를 입었다. 이 이야기는 월천 조목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와 남명 조식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나뉘는데, 월천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에서는 퇴계 선생이 상사뱀을 죽이거나 쫓아버리지만 상사뱀이 신주를 안고 있거나 조월천이 오래 못살거나 집안이 망하는 등의 화를 입는다. 남명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는 화를 입는 사람이 남명의 제자 정인홍으로 등장한다. 어느 쪽이든 상사뱀의 원한으로 누군가가 화를 입는다는 점은 일치한다.

이 유형에서 조월천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여성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 남성으로 등장한다. 「조월천과 상사뱀」(최유신, 남)에서 이방의 딸은 조월천의 애정을 갈구하지만, 조월천은 손에 손수건을 감아 한 번 쓰다듬어 주는 형식적인 위로를 하고 떠난다. 「상사뱀을 앓는 처녀를 못 살린 조월천」의 구연자 임원기는 이방의 딸은 조월천과의 동침을 원했는데, 조월천이 처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그대로 죽었다고 말한다.<sup>26</sup> 이처럼 남성 화자들은 여성의 동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성의 구애에 가장 냉정한 태도를 보인 조월천이 화를 당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뱀-작사랑-해원] 유형은 7편이다. 뱀이 원한을 풀고 사라지는 해원형은 남성 상사뱀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뱀 유형에서는 여성이 상사뱀을 미리 방비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상사뱀이라도 뱀을 떼어낼 수가 없었으며, 이미 몸에 붙은 남자뱀은 퇴치의 대상일 뿐 해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성뱀 설화에서 해원형은 23편 중에서 9편이나 된다.

[여성뱀-작사랑-해원] 유형에서 남성은 자신을 향한 여성의 마음을 미처 알지 못하다가 여성이 뱀이 된 뒤에야 뒤늦게 알게 된다. 그러자 남성은 상사뱀이 된 여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뱀이 자신의 몸을 감도록 허용한다.

---

뱀 이야기와 구조가 거의 동일한데 상사뱀의 성별이 바뀐 것이어서 특이하다. 조사자가 여성임을 의식하고 남성 화자가 변형하여 구술한 것으로 보인다.

26 “색시하고 하룻밤 동품을 해 자고 와야 될 모양인데, 그냥 그 집에 가 자고 오니, 뭐 기어이고치지도 못하고 고마 죽었부렸어.”

[신관휴, 남] 이 양반이 직접 뛰어들어가더만 구랭이를 딱 아들어 보든  
고 “진짓 말이나 한 번 해보지, 뒤져 부렸냐?”

[신중출, 남] 그래 참 아래 우를 활썬 벗고 너 나름대로 온몸을 감고, 구  
리가 그리가주고

[김호준, 남] 기가 맥히서 이래 젖통을 만췌어. 만친께 바싹 말랐는데 젖  
통에 손이 들어간께 아랫도리 배암이 되더랍니다. 배암이 되가지  
고 이순신 장군 허리를 칭 감는데, “오냐, 니 원한 풀리는 대로 감아  
라.”우리 소인걸음만 실배암만 몸에 와도 감썬 놀랄긴데, 원칙 대신  
참 양반이라. “휘여 감아라.” 그래 배암이 이리 감았다가 저리 감았  
다가 한참 감고 나디만은

[이시균, 남] “니가 왜 오짜다 말 한마디도 없이 이 모양이 됐노?” 마 이  
러구 싸민서 등어리를 씨다듬고 이랬다 말이지. 그리고 나니께 고  
마 그 껌기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래 있으니

상사뱀이 자신의 몸을 감싸도록 ‘활썬 벗는’ 것은 상사뱀을 위로하는 일이 성적 행위와 연관되었음을 암시한다.<sup>27</sup> 즉, 상사뱀이 된 여성이 남성을 감는 장면은 성적 행위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남성뱀 유형에서 상사뱀이 ‘처자의 살에 꼬랭이를 꽃고 입은 턱 밑에 대는’ 행위에 상응하는데, 여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성의 몸에 붙었던 남성뱀과 달리 여성 상사뱀은 남성의 허락으로 그의 몸을 감는다.

해원형 설화를 구연한 남성 화자들은 상사뱀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욕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구렁이가 된 처녀」(공평화, 남)의 화자는 “여자가 기냥 달려드는 놈을 거시기 안 허케 해주고 가야제 반대를 허면 재미가 없다”고 하였다. 과거시험처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자의 하룻밤 요구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

27 강성숙은 이러한 장면에 대해 “여성의 욕망을 규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제시”한다고 보았다.(강성숙, 앞의 글, 2011, 184쪽.) 그러나 이 장면이 성적인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의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자는 상사뱀이 되어 남자를 파멸시켰다. 반면에 상사뱀이 된 여성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었을 때는 화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상사뱀이 남성의 출세를 돕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성뱀-작사랑] 유형에는 ‘여성의 동침 요구는 받아주어야 한다’는 남성 화자의 공통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 4 이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

##### 4.1 남성 상사뱀에 반영된 여성의 혐오와 공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사뱀 설화는 화자의 성별에 따른 구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남성 상사뱀 설화에서 남성 화자는 상사뱀에 대해 더 공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 화자는 상사뱀 붙은 여성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여성의 고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화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방비형 설화를 여성 화자만 구연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는데, 방비형 설화에는 상사뱀에 대한 여성들의 혐오감과 공포감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성 화자가 남성 상사뱀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막연히 여성들의 ‘뱀’에 대한 혐오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 주인공이 뱀신랑을 맞이하는 이야기인 「구렁덩덩신선비」는 모든 각편이 여성 화자에 의해서만 구연되고 있는데, 뱀에 대한 화자의 혐오감이 나타나지 않는다.<sup>28</sup>

남성 상사뱀에 대한 여성 화자들의 혐오감은 뱀 자체보다는 ‘상사주체’에 대한 공포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상사뱀 설화는 원치 않는 애정의 끔찍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 화자에 비해 여성 화자들의 혐오감이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이유는 상사뱀이 성적 욕망을 상징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실에서 여성을 향한 성적 욕망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정절이 중시되면서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위협이 상존하는 사회라면, 성적 욕망에 대한 여성의 공포가 더욱 클 수 있다. 강간의 피해자가 오

---

28 유진아,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 『정신문화연구』 제39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참조.

히려 ‘수치스런 존재’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 이를 피하더라도 정절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82년 경상도 웅천에서 있었던 김이단 사건을 통해서 이 점을 살펴보자.<sup>29</sup> 이창범은 열여덟 살의 처녀 김이단을 강간하려다 실패했는데, 며칠 뒤 김이단이 자결하였다. 당시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강간미수인지 이수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sup>30</sup> 『심리록』에 기록된 정조의 판결문을 보면 김이단의 죽음과 여성의 정절을 둘러싼 당시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① 이단은 시골의 열여덟 살 여자로 강간이 욱되다는 것을 능히 알고 한번 죽는 것을 즐거움으로 나아가듯 여겼다. 그렇다면 창범이 비록 포악하더라도 과연 그 의지를 빼앗아 강간을 할 수 있었겠는가? ② 경상도의 계문에 삼을 삼고 밥을 지은 것을 보면 처음에는 굳이 죽을 마음이 없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창범의 아내가 패약을 부린 뒤에야 부끄러워 목숨을 버렸다고 한 자가 있었다고 하였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인가?<sup>31</sup>

정조는 ①에서 강간을 당한 이단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였고, 정절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보면 이창범의 강간은 미수에 그쳤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러한 정조의 판결문에는 ‘순결’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다음 ②에는 경상감사의 계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경상감사는 이단이 처음에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다가 창범의 아내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 다음에야 자결했다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기록하여 올렸는데, 창범의 아내가 행패를 부렸다는 대목에서 창범의 강간이 이단의 음란성에서 촉발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9 「경상도 웅천현 이창범 옥(獄)」, 『심리록』 권9. 이하 김이단 사건 관련 내용은 『심리록』 및 김호, 「조선 후기 ‘인간위킴플’의 이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 『진단학보』 제117호, 진단학회, 2013 참조.

30 ‘강간에 의해 죽음에 이른 울[因奸威逼律]’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형에 처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배등의 형벌을 받는다. (위의 글.)

31 「경상도 웅천현 이창범 옥(獄)」, 『심리록』 권9.

김이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성폭행의 대상이 된 여성은 목숨을 버려야만 인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의 자결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여성은 음란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정절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음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일은 사회적 매장과 같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은 성적 희롱만으로도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느꼈으며, 향촌에서 그 정절을 의심받았다. 1780년 오일운이 서씨라는 여성의 치마 끈을 당기며 희롱하자 서씨는 자결하였으며, 1785년 박승문이 황씨 여인의 광주리를 빼앗으며 희롱하자 황씨가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sup>32</sup> 서씨와 황씨가 성적 희롱만으로 자결한 것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난과도 무관하지 않다.<sup>33</sup>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상사뱀 붙은 여성을 상사바위에서 밀어 버린 상사뱀 설화의 내용을 연상시킨다. 상사바위에서 상사풀이를 하다가 실패 하면 여성들은 상사뱀이 붙은 채로 바위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 이때 여성들을 떨어뜨리는 주체가 대체로 ‘부모’라는 점은 상사뱀이 붙은 딸을 집안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전승집단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상사뱀이 붙은 여성을 상사뱀과 함께 ‘물에 밀어 넣는’ 행위는 강간의 피해 여성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던 상황과 상응한다.

상사뱀 붙은 여성을 상사바위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는 성폭력의 피해자를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드러낸다. 즉, 남성 상사뱀 설화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수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절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 여성은 공동체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했다. 이 점에서 상사뱀에 대한 여성들의 혐오감 내지는 공포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성에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사뱀이 붙을 위험만큼이나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다.

32 위의 글, 130-133쪽.

33 유승희, 「유혹하는 몸과 정절의 경계」, 『여성이론』 제20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 4.2 여성 상사뱀에 투사된 남성의 욕망

남성 상사뱀에 대한 여성 화자들의 태도와 달리, 여성 상사뱀에 대한 남성 화자들의 혐오감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여성 상사뱀 설화에서는 퇴치형이나 방비형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해원형 결말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점은 확인된다. 또한 남성 화자가 대부분인 [여자뱀-짝사랑] 유형에서 화자들은 여성의 동침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남성에게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여성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성 화자들의 인식은 남성 상사뱀의 여성 화자들이 보이는 혐오감과 상반된다. 여성 상사뱀 설화의 남성 주인공들은 여성 상사뱀을 받아들여 몸을 감는 것을 허용하고 보듬어 주었다. 상사뱀이 상징하는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공포나 혐오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뱀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한’이다. 상사뱀의 원한은 남성 주인공이 여성의 애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유형을 구현한 남성 화자들은 월천 조목처럼 여성의 애정을 거부하면 원한이 맺혀 파멸하고 만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한형은 남성 상사뱀 설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뱀 설화에서는 상사대상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수락할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뱀 설화의 남성 주인공은 스스로 여성의 욕망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여성은 원한이 맺혀 상사뱀이 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여성의 욕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남성들의 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욕망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사대부 남성들이 향유했던 조선시대 야담에서도 나타난다. 『삼교별집』에 수록된 「심심당한화」가 일례이다. 「심심당한화」에는 모두 여섯 편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다섯 편이 여성의 구애를 거절한 탓에 여성이 자결하여 원귀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 특히 정암 조광조의 일화는 조월천의 이야기와 상당히 흡사한데,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34</sup>

34 이우성·임형택 편역, 「심심당한화」, 『이조한문단편집』, 창작과비평, 2018, 292-308쪽 참조.

- 1) 열서넛 된 조광조를 이웃집 처녀가 사모하여 병이 들었다.
- 2) 아전인 처녀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조광조의 부친에게 하소연하였다.
- 3) 부친이 조광조에게 처녀의 소원을 풀어주도록 하나 조광조가 거절한다.
- 4) 처녀가 죽어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가 조광조의 집 대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 5) 조광조가 글씨를 써 주자 상여가 움직였다.
- 6) 세상에서 여자의 원한으로 조광조가 화를 당했다고 한다.

「심심당한화」의 저자 안석경은 아버지의 명을 끝내 거절하고 여자에게 동정심을 베풀지 않은 조광조를 비판하였다. 여성의 구애를 거절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시각은 조월천 이야기를 구연한 남성 화자들과 유사하다.

여성의 구애를 거부한 선비가 저주를 받는 이야기는 서사민요 「이사원네 맏딸애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노래에서 맏딸애기는 선비를 유혹하는데, 선비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떠난다. 자신의 구애가 좌절되자 맏딸애기는 선비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그로 인해 남성은 혼인 첫날밤 죽고 만다. 여성의 구애를 거부한 남성이 화를 당한다는 점에서는 여성 상사뱀 설화나 야담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남성인물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설화 및 야담과 달리, 서사민요는 맏딸애기의 시점에서 서술된다. 또한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상사뱀 설화의 여성인물과 달리 서사민요의 맏딸애기는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35</sup> 서사민요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거절당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사원네 맏딸애기」에서 맏딸애기가 ‘하룻밤만 돌러가소’라고 한 것은 아전의 딸이 조월천에게 요구한 하룻밤 동침과 동일하지 않다. 맏딸애기는 선비와의 지속적 관계, 궁극적으로는 선비와의 혼인을 원했다. 장가 간 첫날밤에

35 이정아, 「「이선달네 맏딸애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한국민요학』 제38호, 한국민요학회, 2013.

죽으라고 저주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신과의 결연을 거부하고 다른 여성과 혼인하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가 바로 저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여성뱀-작사랑] 유형의 상사뱀 설화를 구연한 남성 화자들은 여성들의 요구를 ‘하룻밤 동침’으로 보았다. 원한을 품었던 상사뱀이 한 번 남성을 휘감고 나서 원한이 풀린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룻밤의 동침으로 원한이 멎지 않을 수도 있고 멎힌 원한이 풀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결국 남성적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이 점에서 상사뱀 설화에서 남성의 시각이 여성인물의 욕망으로 투사되고 있다는 이정아의 지적은 타당하다.<sup>36</sup> 여성 상사뱀 설화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여성의 욕망이지만,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인 것이다. 여성 상사뱀 설화나 야담은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이상으로 남녀 화자가 구연한 상사뱀 이야기를 비교함으로써 상사뱀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남녀 화자는 자신과 동성인 상사뱀 및 상사대상에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뱀 설화의 여성 화자는 남성뱀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성적 폭행의 위험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여성뱀에 대한 남성 화자의 혐오감은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 화자들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포용하지 못한 남성을 비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욕망을 포용하려는 태도는 사실상 여성인물에 투사된 남성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상사뱀 설화를 구연하는 남녀 화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간 성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화자의 성별에 따라 설화의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이성의 성적 욕망에 대해 남녀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적 욕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남녀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

36 위의 글, 157쪽.

있다. 성 관련 사건이 빈번한 오늘날, 성적 욕망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는 앞으로 주의를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850쪽.

『한국구비문학대계』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726쪽.

『한국구비문학대계』6-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668쪽.

村山智順, 노성환 역, 『조선의 귀신』, 민음사, 1990, 1-516쪽.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1』, 창작과비평, 2018, 1-470쪽.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yoksa.aks.ac.kr)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한국구비문학대계(gubi.aks.ac.kr)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 논문

강미정, 「상사뱀 설화와 영화 「페인티드 베일」의 비교를 통해 본 일방적 사랑의 문제」, 『문학치료연구』 제28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65-197쪽.

강성숙, 「성 정치로 본 상사뱀 설화」, 『고전문학연구』 제39호, 한국고전문학회, 2011, 161-194쪽.

\_\_\_\_\_, 「연결불가능한 신체, 상사뱀의 정치지형」, 『이화어문논집』 제53호, 이화어문학회, 2021, 79-118쪽.

강진옥, 「상사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호, 한국고전문학회, 2000, 115-148쪽.

김영희, 「구전이야기 현지조사연구의 문제와 시각」, 『구비문학연구』 제17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451-500쪽.

\_\_\_\_\_, 「한국 구전서사 속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경증 탐색」, 『한국고전여

- 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45-89쪽.
- 김용덕, 「상사뱀 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1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351-381쪽.
- 김호, 「조선후기 ‘인간위핍률’의 이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 『진단학보』 제117호, 진단학회, 2013, 119-145쪽.
- 박상란, 「여성 화자 구연 설화의 특징」, 『구비문학연구』 제19호, 한국구비문학회, 2004, 277-316쪽.
- 서영숙, 「『이사원네 딸애기』 노래의 서사적 특징과 현실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375-411쪽.
- 유승희, 「유혹하는 몸과 정절의 경계」, 『여성이론』 제20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199-215쪽.
- 유진아,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 『정신문화연구』 제39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31-57쪽.
-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출가외인’ 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87-230쪽.
- 이정아, 「『이선달네 딸애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한국민요학』 제38호, 한국민요학회, 2013, 147-170쪽.
- 이주라, 「근현대 상사뱀 모티프의 변화와 한국 공포물의 특징」, 『비교한국학』 제24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6, 173-203쪽.
- 카이미, 「한일상사뱀 설화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88쪽.
- 한양하·장시광, 「상사뱀 설화로 본 남명의 남성성」, 『남명학연구』 제65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20, 99-129쪽.

## Abstract

His Lovesick Serpent and Her Lovesick Serpent

Yi Jiyong

Tales of lovesick serpents (*sangsabaem*) are divided into male snake tales and female snake tales. In male snake tales, men die for one-sided love and stick themselves to a woman's body after becoming a snake. Female storytellers tend to sympathize with the woman who the snake sticks himself to, while male storytellers tend to sympathize more with the man who became a snake. Tales of a snake retreating due to a woman's tricks were told only by women, and this reflects women's aversion to lovesick serpents. In female snake tales, women who love men become snakes. Tales of women's one-sided love were told mostly by male storytellers, and male storytellers expressed a view that woman's sexual demands should be accepted. Women's aversion to male serpents is linked to the real existence of the threat of sexual assault, while men who do not reject female snakes project their sexual desire through female snake tales.

Keywords: tales of lovesick-serpent, Sangsabaem, storyteller's gender, female story teller, male story teller, one-sided love, sexual demand, aversion to serpent, projection of desire.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